

이통3사, 3분기 영업익 1兆에도... 통신비 압박 등 수익성 악화

수익성 지표 ARPU 지속 하락
5G 가입자수 감소 등 '3高' 직면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완화 추진

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달성했지만 업계는 웃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5G 가입자수 감소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통신비 압박 정책까지 겹치며 '3고(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며 매출 정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분석한 결과, 3사는 합산 14조6815억원 매출과 1조742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매출 4조4026억원, 영업이익 49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 7.0% 증가했다. 엔터프라이

데이터	소량 (~30GB)			중량 (~100GB)					대량 (~250GB)	
	8GB	11GB	24GB	37GB	54GB	74GB	99GB	110GB	250GB	
명목 가격	49,000	55,000	59,000	62,000	64,000	66,000	68,000	69,000	79,000	
25% 할인 적용	36,750	41,250	44,250	46,500	48,000	49,500	51,000	51,750	59,250	

즈 사업이 실적을 끌어올렸고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5%, 38.7% 급증했다. KT는 매출 6조6974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219억원으로 같은 기간 28.9% 감소했다. LG유플러스도 전년 동기보다 2.3% 상승한 3조5811억원 매출을 낸 반면 영업이익은 2543억원으로 10.8% 하락했다. 전력료 인상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 영향이란 설명이다.

레콤은 직전 분기부터 3만원을 하회한 이후로 5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LG유플러스는 2만7300원까지 추락했다. KT는 3사 중 유일하게 3만원대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분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ARPU가 떨어진 이유는 5G 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 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신규 가입자는 3월 46만 9881명, 4월 42만 3119명, 5월 41만 5761명, 6월 32만 1108명, 7월 33만 9314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는 높은 5G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통신비 압박 정책을 내놓으며 통신사의 수익성을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통신비 부

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

실제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3사와 5G 요금제를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을 3만원대로 내려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한화오션, 7917억 규모 韓 호위함 건조 착수

울산급 호위함 배치-III 5, 6번함 계약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 건조 본격화
내년 KDDX 상세설계 등 경쟁력 입증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배치 (Batch)-III 5, 6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울산급 배치(Batch)-III 5, 6번함 건조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7917억원이다.

이번에 체결된 건조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는 것으로 '울산급 배치(Batch)-I II' 계획의 마지막 사업이다.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면 5번함은 2027년 12월, 6번함은 2028년 6월경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Batch)-II 15, 6번함을 선도함보다 뛰어난 후속함으로 건조해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입찰이 예상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



한화오션이 건조할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 모형. /한화오션

함 수주에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울산급 배치(Batch)-III 호위함은 3500톤급으로 길이 130m, 최대 30노트(시속 55km), 대공, 대잠 탐지 능력, 중저속 전기 추진 방식과 고속 항해용 가스터빈 추진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내년에 계획 중인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2000년 이후 새로운 전투개념이 도입된 첨단 국산 구축함 건조사업인 KDX-I, II, III 사업의 전 라인업을 건조한 유일 업체다. 지난 2012년에는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해 이지스함 등 최첨단 수상함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입증한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은 "2035년까지 넷제로 실현 목표"

지속가능성보고서 첫 발간

공급망 내 위험요인 대응전략 수립

SK은이 첫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공급망 내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ESG 경영 활동 고도화에 나선다.

SK은은 2022 SK은 지속가능성보고서 'WE POWER FOR GREEN'을 발간하고, 12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WE POWER FOR GREEN'은 SK은의 신규 미션으로 배터리 제조기업인 SK은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 SK은은 원재료 채굴부터 배터리 사용 후 단계까지 배터리 산업 전 공급망(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영향, 위기, 기회 요인의 식별 및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회사 측은 "유연함이 2025년 이후 공식 의무화를 예정한 '유럽 지속가



SK은 구성원들이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에서 자사가 발간한 '2022 SK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SK은

능성보고서표준(BRS)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의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ISO 14001 & 45001) 취득 ▲국내의 사업장 품질경영 시스템(ISO9001 & IATF 16949) 인증 갱신 ▲국내 사업장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 인증 등 주요 ESG 활동 성과로 소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T 40만원대 중저가 5G폰 '갤럭시 점프3' 단독출시

KT와 삼성전자가 40만원대 중저가 5G 스마트폰 모델 판매를 시작한다. 최근 고물가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KT는 '갤럭시 점프3'를 전국 KT매장 및 공식 온라인몰 KT샵을 통해 단독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많은 사랑을 받은 삼성전자 '갤럭시 점프2' 단말의 후속 모델이다. /구남영 기자

SKT, AI로 범죄예방... 지난해 1800억 지켜

범죄예방대상서 '대통령상' 수상

SK텔레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0일 제 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2016년부터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 민간의 치안활동 참여를 확산하고 자발적 참여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범죄 예방 기여도가 높은 우수단체에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SKT는 이번 제8회 범죄예방대상시

상식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첨단 기술들의 지속적 상용화를 통해 범죄예방에 공로를 세운 성과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10만 5000여건 및 수신 6000만건 이상을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약 1856억원의 피해 금액을 예방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대응 팀(Cyber위협대응팀)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폭넓고 긴밀한 신규 협력체계 구축 및 신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구남영 기자

티웨이항공, 지방발 국제선 특가 프로모션

티웨이항공은 지방공항발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11월~3월 출발 해외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티웨이항공은 청주·대구·제주·부산 출발 국제선 총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특

가 프로모션으로 진행한다. 12일 밝혔다. 13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탑승 기간은 11월 13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다. /허정윤 기자

LG전자, 수능 시험장 냉난방 시스템 점검

LG전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LG전자는 하이엔드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250

여곳 시험장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엔지니어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실외기 팬 상태와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난방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